

‘젊은 문학’을 위하여

— 염상섭 후기 ‘연애소설’을 중심으로*

신은경**

요약

본고는 염상섭이 1950년대 후반에 발표했던 소설을 통해서 그의 ‘연애소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전후문학의 색채가 신세대 문학가로서 점철되는 1950년대 후반에 이르자 염상섭의 소설은 기성 문학의 한계성으로 논의되었다. 염상섭은 자신의 작품이 기성의 ‘노쇠 문학’이라는 비판에 맞서 젊은 비평가들과 ‘젊은 문학’에 대한 문학적 논쟁을 하였다. 그 후 1959년 1월 『사상계』에 「싸우면서도 사랑은」을 발표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염상섭이 1950년대 후반에 추구하고자 했던 ‘젊은 문학’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애소설’의 방식이 드러난다. 「싸우면서도 사랑은」은 1950년대 후반, 새로운 문학적 국면을 맞이한 염상섭의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연애소설’에 대한 염상섭의 창작 의지와는 별개로 기존에 자신이 추구해 왔던 기성의 문학적 경향이 무의식적으로 발산됨에 따라 그가 기획했던 연애소설은 방향성을 잃고 만다. 다만 이 소설을 통해서 과거의 문학 지향적 틀을 내재화하고 있었던 노년 작가의 자화상이 발견될 뿐이다.

주제어: 염상섭, 연애소설, 젊은 문학, 전후문학, 1950년대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3S1A5B5A17084807)

** 충북대학교 교양교육 강사

목차

1. 1950년대 후반, 염상섭 문학의 상황
2. 젊은 문학 논쟁과 연애소설의 정의
3. 기성의 가치관과 가족 서사
4. 민족문학의 회귀와 연애소설의 한계
5. 결론

1. 1950년대 후반, 염상섭 문학의 상황

1950년대 전후에 기성 문인이었던 염상섭은 재편되는 문단의 현실과 마주했다. 당시 전후문학은 손창섭, 장용학, 선우휘와 같은 한국전쟁 당시에 등단하거나 소설을 발표했던 '신세대 작가'의 작품 중심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쟁을 겪은 인간의 내면적 상처와 의식을 '실존주의', '자유주의' 등을 통해 문학적 세계관을 공고히 했다. '신세대 작가'의 문학적 지향은 새로운 시대적 사조와 결합하면서 힘을 얻었고 이들의 작품은 1950년대 전후문학의 시대를 대변했다.

전후문학의 색채가 신세대 문학으로 점철되는 1950년대 후반에 이르자 염상섭의 소설은 기성 문학의 한계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염상섭은 자신의 작품이 기성의 '노쇠 문학'이라는 비판에 맞서야 했고 이어령 같은 젊은 비평가들과 '젊은 문학'에 대한 문학적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염상섭은 자신의 문학이 노쇠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인식하는 젊은 문학의 기준을 '연애소설'로 정의하였고, 논쟁 이후에 연애 서사가 담긴 단편소설 「싸우면서도 사랑은」을 발표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염상섭이 1950년대 후반에 추구하고자 했던 '젊은 문학'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애소설'의 방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연애 서사는 염상섭의 새로운 문학적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염상섭의

1950년대 후반 소설에서 제시된 연애 서사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김경수는 염상섭의 1950년대 전후 장편소설 전반을 연구하였다. 여기서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는 연애소설이지만 전쟁 이후 세대간 윤리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¹⁾하였다. 정중현은 『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 연작을 통해서 염상섭은 해방기의 정치적 비전과 윤리를 연애의 서사를 통해 관철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염상섭 소설에서 정치의식이 연속성을 지닌다²⁾ 하였다. 공중구도 이 두 작품을 연구하며, 상호이질적인 두 개의 서사가 공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선명한 차이로 인해 ‘여성의식 서사’가 나타나며 다른 하나는 자유당 당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사회·정치의식의 서사’다³⁾ 논의하였다. 유서현은 장편소설 『홍염』, 『사선』을 연구하면서 여기에 제시되는 연애 서사는 1950년대 남성지식인인 염상섭의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독자들의 새로운 정치성을 발견할 수 있다⁴⁾ 주장했다. 윤국희는 『대를 물려서』에 제시되는 남한 단독정부 세대 정치인과 그 자녀 세대의 복잡한 연애관계를 통해 1950년대 후반 염상섭의 정치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⁵⁾ 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염상섭의 1950년대 후반 장편소설에 제시된 연애 담론은 염상섭의 정치, 윤리성과 결부되어 해석되었다. 결국, 장편소설에서 염상섭이 추구한 연애소설은 해방기에 추구했던 민족주의와 사실주의적 경향에서 벗어나

1) 김경수, 「전후 염상섭 장편소설의 전개」, 『서강어문』 13, 서강어문학회, 1997.

2) 정중현,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62, 동악어문학회, 2014.

3) 공중구, 「1950년대 염상섭 소설의 여성의식과 사회·정치의식-『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4) 유서현, 「한국전쟁기의(재)구성 염상섭의 『홍염』·『사선』론」, 『人文論叢』,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5) 윤국희, 「1950년대 염상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과 정치 염상섭의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人文論叢』,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지 않은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김영경은 염상섭의 말년에 해당하는 단편소설을 살펴보고, 염상섭이 과거의 사건 및 서사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⁶⁾를 발견했다. 이처럼 염상섭의 1950년대 후반 작품 연구는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상대적으로 단편소설에서 드러나는 연애의 의미는 면밀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당시 염상섭이 기성의 위치에서 노쇠의 문학이라는 미명 아래 젊은 문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연애소설 집필 의지로 표명하며 단편소설 「싸우면서도 사랑은」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연애 단편소설 연구도 염상섭의 후기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본고는 염상섭의 후기 문학에 대한 의미적 확장을 위해 염상섭이 연애소설로서 구현하고자 했던 「싸우면서도 사랑은」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연애소설의 형태와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다음의 연구 방향성을 전제하고자 한다. 먼저 「싸우면서도 사랑은」에 제시되는 연애의 의미는 이전 시기의 작품 관계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이어령과 논쟁 이전 1958년 5월 『자유공론』에 발표한 「택일하던 날」의 속편 형태를 띠고 있다. 염상섭은 「싸우면서도 사랑은」이 「택일하던 날」의 속편이라는 점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상황과 이름이 모두 같고 서사적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두 소설은 연속적 작품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염상섭이 이전 시기에도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연작 형태의 소설을 발표하였다는 점과 기존 연구도 이 소설들을 연속적 시선에서 논의하였다는 것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장편 연작 형태의 소설들은 등장인물의 이름이 다르고 개명된 형태임에도 ‘인물간 유사성에 의해 연속적 소설로 간주’⁷⁾

6) 김영경, 「염상섭 전후(戰後) 단편소설과 말년의 감각」, 『우리말 글』, 우리말글학회, 2021.

7) 강현국은 장편소설에 발생한 속편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삼대』의 속편으로서 『무화과』를 연구하면서 왜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제기하며 두 작품의 불연속을 통한 연속성을 비교하였다. 속편이 등장한 장편소설로는 『삼대』와 『무화과』, 『난류』,

되었다. 더욱이 「싸우면서도 사랑은」과 「택일하던 날」에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동일하고 형태적으로도 유사성이 강하기에 전편과 속편 형태는 더욱 공고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두 작품은 전편이 “가족사, 현실 관련 서사”가 중심이 되고 속편이 “연애 서사”가 중심⁸⁾이 되는 『삼대』와 『무화과』의 장편 연작 형태의 소설과도 유사한 서사적 형태를 띠는 점에서 연속적 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도식적 서사 방식은 장편소설이라는 완결적 형태의 두 작품을 통해서만 온전히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사적 도식성은 단편소설인 「택일하던 날」, 「싸우면서도 사랑은」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기에 이러한 연결성은 염상섭이 무의식적으로 기존의 창작적 형태를 유지하고자 했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의 연결성은 염상섭의 1950년대 후반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독법이 된다. 이처럼 연속적 구조에 놓인 두 작품에 대한 관심은 1974년 김종균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종균은 염상섭 소설 전반을 연구하면서 1950년대 후반 소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싸우면서도 사랑은」이 「택일하던 날」의 속편⁹⁾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또한 김영경도 두 작품은 연속적 측면에서 논의¹⁰⁾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는 염상섭이 이 시기에 연속적 단편소설을 집필한 원인을 규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싸우면서도 사랑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택일하던 날」의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게다가 「택일하던 날」이 발표된 이후 1958년 6월 김성환이 염상섭의 작품에 대해 ‘연만(年晩)’하다고 비판했고, 이를 계기로 염상섭이 이어령과 ‘젊은 문학’에 관해 논쟁했기에 이 작품을 통해서 염상섭의 새로운 창작 방식의 형성 과정을 알

『취우』, 『미망인』, 『화관』이 있다. 강현국, 「통속화의 경로」, 『현대소설연구』 9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

8) “원영이 「무화과」에서 연애 서사의 중심이라면 덕기는 「삼대」 가족사 관련 서사와 현실 관련 서사의 중심에 자리한다.” 강현국, 위의 논문, 140면.

9) 김종균, 『염상섭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 250면.

10) 김영경, 위의 논문, 259면.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두 작품을 연구하는 것은 염상섭의 후기 소설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 발견으로 이어지며 그의 후기 문학관에 대한 재인식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1950년대 후반 염상섭의 연애소설로서 「싸우면서도 사랑은」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시기에 염상섭이 발표한 작품을 살펴 봐야 한다. 염상섭이 「싸우면서도 사랑은」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연애소설에 대한 창작 의지는 1958년 5월 「택일하던 날」 발표 이후 같은 해 6월에 나온 「수절내기」에 대한 문단의 평가에서 비롯되었다. 1958년에 발생한 문학적 논쟁을 통해 염상섭은 신세대 문학과 상대적 거리에서 논의 되었고 당시 이무영은 이를 “신구세대의 대립”¹¹⁾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수절내기」라며, “노작가는 이미 전세기에 속하고 그들의 문학을 골동품시하는 괴변이 나오”는 “가뜩이나 이럴 때 「수절내기」 같은 작품이 불행이 나온 것이다.”¹²⁾비판했다. 즉, 「수절내기」에 전개된 염상섭의 기성적 문학관은 신세대 문학과 더욱 대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젊은 문학에 대한 논쟁을 발생하게 했다. 그러므로 「수절내기」를 통해 염상섭이 신세대 문인과 대립적 문학관을 형성하게 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싸우면서도 사랑은」에서 벗어나 고자 했던 기성의 문학적 형태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논의를 중심으로 1950년대 후반 염상섭이 발표한 「싸우면서도 사랑은」에 제시되는 노년 작가로서 염상섭이 구현하고자 했던 젊은 문학의 형태와 연애소설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또한, 「싸우면서도 사랑은」이 1950년대 후반 염상섭의 단편소설 중에서 새로운 연애소설로서 등장해야 했던 원인을 「수절내기」와 「택일하던 날」의 서사적 양상을 통해서 해석하고자 한다.

11) 이무영, 「진통모색의 팔년 편연해진 신구세대의 대립(상)」, 『조선일보』, 1958.6.25.

12) 이무영, 「오십대문학의 항변2」, 『동아일보』, 1958.7.6.

2. 젊은 문학 논쟁과 연애소설의 정의

「싸우면서도 사랑은」의 창작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후반 염상섭이 겪은 문학적 혼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전후의 신세대 작가였던 김성환은 1958년 6월 펜클럽에서 주최한 합평회에서 염상섭 소설은 “연만(年晩)해서 자연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 같다”며, 염상섭의 문학을 ‘노년’, ‘기성의 것’으로 분류¹³⁾했다. 이에 대해 염상섭은 1958년 6월 동아일보에 「문학도 함께 늙는가」는 글로써 불편한 심사를 드러냈다. 이 글에서 염상섭은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자신은 기성 문학가지만 노쇠의 문학을 하지 않으며, 신세대가 추구하는 문학적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학은 늙지 않는다. 늙는다는 것과 병과는 다르지마는, 문학이 함께 늙었다가는 문학이 안된다”, “노쇠문학 이라는 것은 들어본적이 없다”는 표현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소위원숙”의 경지는 오십을 넘어서 오며, “원숙의 경지에 다다를수록 그의 문학은 차츰 정채(精彩)를 더해 올 것”이고, “정채를 띠운다는 것은 늘 젊을 수 있다는 말”¹⁴⁾이라며 자신의 문학이 ‘연만(年晩)’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실존주의적 경향이 리얼리즘 추구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점으로 설명¹⁵⁾했다.

13) “이 이야기의 발단은 실로 사소한데서 시작되었다고 기억된다. 지난달 펜 클럽에서 주최한 합평회 석상에서 사회를 맡은 김성환형이 염상섭씨의 작품에 ‘연만해서 자연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 같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이 오전이되어 <자유문학>지 유월호에 합평과 작품이란 수필로 나왔고 뒤이어 동아지에 <문학도 함께 늙는가>는 문제를 제시하자 삼십대의 젊은 평론가 이어녕군의 공개장이 발표되게 이른 것이다.” 이무영, 「오십대문학의 항변」, 『동아일보』, 1958.7.5.

14) 염상섭, 「문학도 함께 늙는가(상)」, 『동아일보』, 1958.6.12.

15) “그러나 실존주의철학이나 그문학이라는 것을 좀더라기보다도 본격적으로 연구라도 해보고 싶지마는 불안과 부조리 속에서 살아오기를 말하면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겠으니, 차라리 불

동아일보에 실린 염상섭의 발언이 당시 문단에 공론화가 된 것은 30대 젊은 비평가 이어령을 통해서였다. 이어령은 1958년 6월 22일, 23일 양일에 걸쳐 「문학도 함께 늙는가를 읽고」¹⁶⁾라는 글을 경향신문에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먼저 염상섭이 신세대 작가들이 구현한 실존주의 소설을 평가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어령은 “육이오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고아와 같이 젊음이 던져졌으며, “역사적 진통”에 “연약한 육체”를 느꼈고,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쓰고 또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상섭이 “남의 사상 남의 불행”이라고 언급한 것에 의문시하며 반문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불안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특권”이나 “유행”이 아니며, 자신의 세대에 대한 “유일한 양심, 유일한 책임”이기에 이는 “저항의 투혼만으로 소유”한 것이라 주장했다. 즉, 전후의 절망과 불안 등에서 비롯된 시대적 저항 의식이 바로 “문학의 젊음”을 표현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어령은 젊은 문학을 ‘연애소설’로 동일시한 염상섭의 문학적 의식에도 문제 삼았다.

염상섭은 「문학도 함께 늙는가」에서 “문학이 늙지 않은 실증으로 연애소설을 죽기전에 한편쓰고야 말지도 모를일이다.” 하였고, “정서가 고갈하

인과 부조리에 휘둘리기 전에 표현방식 표현방법으로 만도 우선은 리얼리즘에서부터 출발하여 이것을 졸업하고 나서, 갱진일보하는 새길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않을까 생각한다.(종락) 그 뿐만아니라, 불란서의 국민성이나 실정은 잘모르되, 표면성으로만 보아도 혹독한 서리를 두번이나맞고 난그네와 건국초에 앓은 우리와는 보는바와 생각하는바가저절로 부현수할것이요 또달라야 할 것이다.” 염상섭, 「문학도 함께 늙는가(하)」, 『동아일보』, 1958.6.12.

- 16) “불안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사치스러운 특권이라고 유행이라고 말하시는 한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문학적 노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의 젊음을 자랑할 만큼 그렇게 화려한 시대에 살고 있지않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젊은은 참으로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들 세대에 대한 유일한 양심 유일한 책임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기만한 저항의 투혼 그것뿐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학의 젊음입니다.” 이어령, 「문학도 함께 늙는가를 읽고(하)」, 『경향신문』, 1958.6.22.

여 그러한 젊음이 세계는 들여다볼 기력도 없고, 붓이 잘 돌지도 못하러 하고 지레짐작¹⁷⁾하는 것은 억울하며 문학이 생리적 연령과 함께 늙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 발언을 통해서 이어령은 염상섭이 ‘젊음’을 ‘연애’와 같은 물리적 욕망으로 동일시하고 ‘젊은 문학’을 ‘연애소설’로 해석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젊음과 오늘의 젊음은 너무나 다르다.”¹⁸⁾ 며 염상섭의 발언을 비판했다. 또한 염상섭에게 “자신의 젊음을 실증하기 위해 연애소설을 쓸 필요는 없다”, “문학적으로 젊음을 입증하시려한다면 연애소설이 아니라 하늘을 떠메고 사는 에트라스처럼 이 시대를 떠받치고 살아가는 그 지루하고 답답한 고역을 다시 돌아가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서 “불행한 세대의 호흡을 공동체험하는 것, 피식은 젊음에 온정의 사상을 주는 것, 이 세기의 질함과 이쁨도 없이 죽어간 비명의 뉘들에게 조그만한 묘비명을 기록하는”¹⁹⁾ 것이 선배 문인이 할 수 있는 문학적 젊음의 입증 방법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령의 비평에서 알 수 있듯이 염상섭은 ‘문학적 젊음’을 ‘연애소설’로 해석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해서 같은 기성 문인이었던 이무영도 이어령과 비슷한 시선에서 염상섭의 발언을 평가했다.

이무영은 1958년 7월 5일 동아일보에 「오십대문학의 항변²⁰⁾이라는 글을 썼고, 여기서 염상섭의 입장을 항변하면서도 그의 문학적 견해가 편협하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그는 “염상섭씨가 문학의 젊음을 연애소설로서 결론지으려는 태도를 이 이상 더 고집하지 않는 이상 일종의 해학을 돌려 버릴 수 있다”²¹⁾며, 염상섭이 “우리의 문학의 젊음을 연애라든가 연애소

17) 염상섭, 「문학도 함께 늙는가(하)」, 『동아일보』, 1958.6.12.

18) 이어령, 「문학도 함께 늙는가를 읽고(상)」, 『경향신문』, 1958.6.21.

19) 이어령, 「문학도 함께 늙는가를 읽고(하)」, 『경향신문』, 1958.6.22.

20) “같은 서울안에 살면서도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세대를 따로 갖고 있고 또 생활 하고 예술을 하고 있다.(중략) 젊음에 대한 이념의 상반은 곧 정치이념의 차이요, 윤리의 차이요, 철학의 차이이다.” 이무영, 「오십대문학의 항변1」, 『동아일보』, 1958.7.5.

21) 이무영, 「오십대문학의 항변2」, 『동아일보』, 1958.7.6.

설로만 협의적으로 규정해버리지는 의도에서라기보다도 일종의 아이러니로서 한 말”²²⁾이라고 염상섭의 발언을 두둔하였다. 또한 “삼십대와 육십대의 젊음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곧 삼십대문학과 노장파문학과와의 모랄의 차이요 제네레숀의 차이이기도 한 것”이라며 두 세대의 의식적 차이는 자연스러운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구세대가 가진 문학적 사상과 철학에 리얼리즘이 있다.”며, 신세대 문학과와의 근본적 지향의 차이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무영은 염상섭이 일생을 리얼리즘의 문학을 추구했고, 이러한 “사실문학이 문학의 리얼리티를 부정은 안하면서도 사실속에서 진실을 찾는데 성공해진 신세대의 구미에는 맞지를 았은 것이다.”²³⁾라 예측하고 염상섭의 문학적 성격을 대변했다. 하지만 염상섭이 “우리의 문학의 젊음을 연애라든가 연애소설로서만 협의적으로 규정”²⁴⁾한 점을 비판하며, 염상섭의 문학적 경향이 전후문학의 흐름과는 맞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쟁 이후 염상섭이 “칩거, 번거로운거리에 일체 나가지 않는다”²⁵⁾ 다는 등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그 후 그는 1959년 1월 「싸우면서도 사랑은」을 발표하였다. 염상섭은 이 소설을 발표하기 이전에 늙은 문학, 노쇠 문학이라는 동료 문학과와 젊은 비평가의 평가에도 스스로 ‘젊은 문학’을 할 수 있다고 외쳤다. 그리고 이것이 공허한 기성작가의 목소리가 아닌 실현 가능한 것임을 「싸우면서도 사랑은」의 연애 서사 방식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단편소설 한편을 통해서 그동안에 공고히 해왔던 문학적 지향성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적 지향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굵직한 시대적 비극을 겪으면서까지 문학가로서 구심점을 지켜나간 이유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

22) 이무영, 「오십대문학의 항변1」, 『동아일보』, 1958.7.5.

23) 이무영, 「오십대문학의 항변2」, 『동아일보』, 1958.7.6.

24) 위의 글.

25) 「두문불출하는 중, 독주독악의 염상섭씨」, 『동아일보』, 1958.8.7.

다. 이는 전후 이전 시기부터 그가 주장해 왔던 ‘민족문학’과 ‘사실주의’를 통한 문학적 방향성과 관련한다.

염상섭은 3·1운동 이후 “객관적 조건이 불리에 비하여 문학 내용에 있어 인생 생활의 근본을 건테리어 사실주의적 본무대로 들어갔고 문학주의에 있어 자연주의의 기치를 뚜렷이 내세웠”²⁶⁾ 다 평가했다. 그리고 해방기에 “자유무해한 입장”²⁷⁾을 바탕으로 좌우의 이념적 사상에서 벗어난 ‘중도파’로서 정체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식으로 ‘민족문학’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전쟁 시기에는 “여상한 추이로 발달되어 오는 동안에 자연주의 문학이라기보다도 널리 사실주의 문학이 확보한 기반이 쌓게 되었고, 민족문학으로서의 독자의 광채를 발하게”²⁸⁾ 되었다며, ‘민족문학’의 발현은 ‘사실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지속해서 주장했다. 이러한 의식은 전후문학의 시대에도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신세대 작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실존주의적 문학을 부정했다. 염상섭은 실존주의는 “불안”과 “부조리”를 담고 있는 유행적 사조라²⁹⁾며 실존주의를 통한 문학적 지향은 “부정적 사념이나 태도”이고 “건설하고 건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서 전후문학은 실존주의보다 사실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불란서의 국민성”은 우리와 다르다면서 “민주국가”, “민족문화”, “국민문화”의 터를 닦아야 한다고 했다. 즉, 전후의 문학가들은 실존주의에 기반으로 한 ‘부조리’에 휘둘리지 말고

26) 염상섭, 「만세전 후의 우리 문단」, 『조선일보』, 1954.3.1.

27) 염상섭, 「민족문학이란 용어에 관련하여」, 『호남문화』, 1948.

28) 염상섭, 「한국의 현대문학」, 『문예』, 1952.

29) “실존주의가 들어오고, 불안이니 부조리니 하는 유행어가 범람하게 된 뒤로는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곰팡이가스듯처럼 일부에서는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리얼리즘으로 일관한 나같은 사람의 문학은 그야말로 늙었다고 할지도모르겠다. (중략) 우리는 일질의 부정적사념이나 태도를 물리치고 건설하고 건설적인 인생관과 문학이념을 세워가며, 민주국가의 완성과 국토통일에 매진하여야할것이지요. 여기에 문필봉사를 하는 한편, 민족문화와 국민문화의 터를 굳게 또 험히닦아놓는데에 전력을 기울여야할 것은 새삼스레 노노할바도아닐 것이다.” 염상섭, 「문학도 함께 늙는다(하)」, 『동아일보』, 1958.6.12.

‘리얼리즘적’ 표현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문학을 구성해야 함을 명시했다. 그리고 염상섭은 실존주의에 입각한 문학이 자신이 추구하는 “리얼리즘”적 문학을 ‘늙은 사람의 문학관’, “곰팡이슨”것으로 치부한다고 여겼다. 염상섭은 ‘실존주의’를 토대로 창작된 신세대 작품에 의해 자신의 소설이 ‘노쇠 문학’으로 밀려났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염상섭은 이러한 주장 가운데 「수절내기」가 기성의 문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문학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학이 ‘노쇠 문학’으로 점철된 원인을 파악하고 ‘연애소설’에 대한 창작적 의지를 다져야 했다.

그러나 연애소설을 쓰겠다는 염상섭의 발언은 그가 이미 이전에도 연애 서사가 포함된 작품들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었다. 염상섭 자신도 “월체 연애소설을 쓴 것이 드물고 장편인 경우에는 제재를 연애에 두지않더라도 사람이 사는데는 남녀의 애정관계가 큰 폭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대중지에 어린 기녀의 애련을 주제로 한 단편”에서 “작품은 모른 작중에서 오는 젊은 남녀의 젊음이요, 삼각관계의 애욕에서 풍기는 젊음임에 틀림없지마는, 또한 그것은 그 작품 자체가 가진 젊음일 수도 있다.”³⁰⁾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기존 작품에도 애정 서사가 나타났음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연애소설을 쓰겠다는 그의 주장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염상섭은 그동안 자신이 써왔던 연애소설이 신세대 문학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연애소설의 형태와는 다름을 인식했다고 추측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에서 염상섭의 1950년대 후반 장편소설에 연애 담론이 염상섭의 정치적 의식과 윤리성을 대변했다는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염상섭이 추구한 정치적 의식은 그가 해방기부터 본격적으로 주장했던 기성의 문학관과 관련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

30) 염상섭, 「문학도 함께 늙는가(하)」, 『동아일보』, 1958.6.12.

애소설에 대한 염상섭의 창작 의지는 이무영이 “일종의 아이러니”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연애소설에 대한 창작적 다짐은 염상섭이 자신의 문학적 경향을 노년, 노쇠의 것으로 규정한 현실에 대한 일종에 울분 토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울분은 전후 신세대 문학관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애소설 집필 의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염상섭은 연애소설 한 편을 쓰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연애소설의 형태를 유추했다.

“연애소설을 쓰는 경우라도 원채 생활이란 순경에서보다는 역경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요, 인생미를 더 맛볼 수 있는것이기에 때문에 야기자 기한 애욕역정이라든지 황홀한 연애 장면을 그리고 헤피엔드로 대단원을 짓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수룩치가 않다.”³¹⁾

염상섭은 자신의 기존 소설에 형성된 ‘연애’는 ‘인생 역정’이 목적된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애욕역정”, “황홀한 연애 장면”, “헤피엔드 대단원을 짓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수룩치가 않다.”며 전후문학의 현실에서 제시되는 연애소설과 자신이 생각해 왔던 연애소설은 다르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인식은 그의 창작적 지향성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염상섭은 초기 창작 시절부터 소설은 인간의 암담한 삶의 진실을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형성된 연애의 모습은 삶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에서 부수적 소재로 활용했다. 염상섭은 이러한 작품들은 오로지 ‘연애’만을 목적하는 작품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즉, 염상섭은 전후의 ‘연애소설’의 형태는 애욕역정, “황홀한 연애 장면”, “헤피엔드 대단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연애 자체가 목적되어야 한다고 새롭게 인식했다. 이를 바탕으로 염상섭은 「짜우면서도 사랑은」에 자

31) 염상섭, 위의 글.

신이 새롭게 정의한 연애소설 형태가 구현되도록 기획했다. 이를 통해서 염상섭은 “문학은 함께 늙지 않는다. 늘 젊어야 하고, 또 늘 젊을 수 있다.”³²⁾ 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다.

3. 기성의 가치관과 가족 서사

염상섭은 「문학도 함께 늙는가」에서 자신의 문학이 ‘노쇠 문학’으로 언급되는 원인을 ‘연애’를 목적인 ‘연애소설’의 부재로 보았다. 그는 전후 이전에도 남녀의 연애를 다룬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소설은 삶에 대한 ‘순경, 역경’을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연애’는 부차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었다. 그러나 염상섭은 젊은 문학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연애’가 목적화된 소설은 ‘애욕역정’, ‘황홀한 연애 장면’, ‘해피엔드 대단원’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게다가 연애가 목적되지 않은 소설의 양상은 장편소설뿐만 아니라 단편소설에도 마찬가지로 염상섭은 자신이 기성 문학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젊은 문학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던 1958년 6월에 발표된 「수절내기」가 기성의 가치관에서 ‘애정’의 양상이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수절내기」는 한 남성을 둘러싼 두 여성의 수절 내기와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처·첩간 갈등을 그리는 소설이다. 물론 이 소설에도 세 남녀 사이의 애정 양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소설은 이를 주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다. 다만, 애정은 한 남성을 둘러싼 처·첩 간의 갈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즉, 여성들의 질투와 충돌 가운데 ‘애정’은 부차적인 감정으로 제시된다. 게다가 이 소설에 형성되어 있는

32) 염상섭, 「문학도 함께 늙는가(상)」, 『동아일보』, 1958.6.12.

처·첩 간 갈등은 이미 염상섭이 과거 작품에서 자주 사용했던 애정의 서사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순수한 남녀의 애정을 목적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남편이 어제도 동간집에 갔더라는 것이 희숙에게 더 분을 질러 놓았던 것이다.(중략) <어제 그녀의 집에만 갔다오지 않았던들.....> 하는 일념에 절통해 못 견디겠는 것이요, 더 미워 죽을 지경이다.³³⁾

가라는 것까지는 꿀꺽 참았지마는 술장수라고 깔보고 <자네>라고 훗 부리며 옛날 실내마님이 침년 다루듯 하려는 데에 한층 더 발끈해서 인제는 인사 차릴 것 없이 마구 덤비었다.³⁴⁾

「수절내기」에 등장하는 본처 희숙은 사망한 남편의 첩인 동간택을 오래전부터 질투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죽사(猝死)했고, 이에 대한 원인을 동간택으로 인식하며 그녀를 원망했다. 동간택도 예전부터 자신을 “침년”으로 대하는 희숙을 못마땅해했다. 그리고 희숙에게 죽은 남편을 빼앗긴 것으로 생각하며 적대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두 여성이 갈등하게 된 본질적 원인은 남편이 두 여성 모두 온전하고 순수한 애정을 주지 않았던 가부장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소설은 여성의 원망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같은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처·첩 간의 갈등 관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내재 되어 있다. 이는 두 여성이 처한 고난과 삶의 비극 원인이 두 여성의 태도 문제로만 제시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이 소설은 가부장적인 기성의 가치관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남성을 둘러싼 질투 어린 여성들의 감정을 전통적인 측면에서 지고 지순한 여성성을 상징하는 정당화된 표현방식으로 묘사했다. 이는 염상

33) 염상섭, 「수절내기」, 『염상섭전집』, 민음사, 1987, 190면.

34) 위의 글, 191면.

섭의 소설이 기성 측면에 여전히 함몰되어 있다고 비판받는 부분이었다.

처첩(妻妾)간(間)의 수절(守節)내기속에 인생(人生)이 있고 생활(生活)이 있고 진실(眞實)이 있다는 사고방식(思考方式)과 그러한 인생(人生)에게는 곱팡이내 이외(以外)에 말지못하는 신세대(新世代)의 사고방성(思考方成)과의 사이에 노여진 거리(距離)란 실(實)로 접근(接近)해볼 수 없는 상거(相距)인 것이다. 같은 하늘밑에 살면서도 이렇듯 영원(永遠)한 평행선(平行線)을 걸어야한다는 것은 확실(確實)히 비극(悲劇)이다. 이 비극(悲劇)의 극복(克服)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最大)의 임무(任務)다.³⁵⁾

이무영은 「수절내기」에 제시된 “처첩간의 수절내기속에 인생이 있고 생활이 있고 진실이 있다는 사고방식과 그러한 인생에게는 곱팡이내”라며 이는 결국 신세대의 사고방식과 “영원한 평행선”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당시 신세대 작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전후 문단이 인간 존재에 대한 허무 의식과 실존에 주목했다는 점을 비춰 볼 때 「수절내기」는 염상섭이 전후에도 여전히 과거 문학적 방식을 이어나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작품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상섭의 문학은 ‘늙은 문학’, ‘노쇠의 문학’이라는 평가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발표된 「택일하던 날」도 「수절내기」와 마찬가지로 연애가 목적이 아니라 가족 현실 관련 서사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 수복 이후 명선은 부모의 권유로 동석과 택일 날짜를 받았지만, 그녀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군대로 간 박상기라는 남성을 마음에 두었기에 애정의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명선은 집안의 반대에도 상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으며, 동석과의 혼인이 늦춰지기를 바랐다. 그리고 택일단자가 동석의 집에 도착하기 전 자신은 그와 혼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

35) 이무영, 「오십대문학의 향변2」, 『동아일보』, 1958.7.6.

했다. 결국 다섯 달 반 만에 박상기가 돌아왔고, 그의 도움으로 명선은 가족과 2차 피난을 떠나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물론 이 작품도 군대로 간 남성을 기다리는 여성의 모습에서 애정적 서사는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 소설을 염상섭이 추구하고자 했던 ‘연애소설’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염상섭이 이어령과의 문학적 논쟁 가운데, 연애소설의 요소로 제시했던 “애욕역정”, “황홀한 연애 장면”, “해피엔드 대단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택일하던 날」은 명선 가족 이야기와 상기를 기다리는 명선의 고난 등 가족과 현실 상황이 중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명선의 모습을 통해서 이 소설은 전후 현실에서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전통 구조의 가족 관계와 전쟁 중 전쟁터로 떠난 남성을 기다리는 여성의 모습이 주체화되고 있다. 이는 명선은 부모로부터 동석과 혼인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강요를 받았고 박상기에 대한 그리움으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지는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명선이 군대로 간 상기를 기다리는 것은 전시의 대다수 여성이 겪어야만 했던 삶의 현실이었다는 점에서 당대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이 소설은 삶의 진실성 추구라는 ‘사실주의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기에 염상섭이 새롭게 정의한 ‘연애소설’의 가능성에서 벗어나 있다. 물론 소설의 결말 부분에 박상기가 돌아와 명선과 재회했지만, 이들의 애정은 1·4후퇴라는 상황에 맞물려 ‘황홀한 연애 장면’까지 구현되지 않는다. 게다가 세 남녀가 얽혀 있는 애정 관계는 소설 결말까지 해소되지 않은 채 끝나기에 ‘해피엔드 대단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즉, 상기와 명선은 간신히 다시 만나게 되었음에도 2차 피난을 떠나는 상황이 소설 후반부에 제시되면서 두 남녀의 애정은 희석되고 전쟁이라는 시대적 비극만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택일하던 날」은 ‘애정’이 주가 되는 ‘연애소설’ 형태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남녀의 애정은 존재하지만, 가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과 전쟁 중 피난민이 된 전시의 인간상이 주

요한 서사적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 서사로 인해 염상섭이 겪은 문학의 논쟁 이후 후속 작품에서 연애가 목적인 작품을 창작 할 수 있었다. 또한 「택일하던 날」에서 전개된 ‘가족 서사’는 염상섭이 이전 연속적 장편소설에서 반복적으로 구현했던 연애를 담은 속편 창작을 위한 전편의 서사적 구조이기도 했다. 그래서 염상섭은 이후의 작품에서 연애소설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4. 민족문학의 회귀와 연애소설의 한계

염상섭은 1959년 1월 『사상계』에 「싸우면서도 사랑은」을 발표했다. 1958년 8월 7일 『동아일보』의 「두문분출하는 중 독주독악의 염상섭씨」를 살펴보면 염상섭은 문학 논쟁 이후 “서재에 칩거, 번거로운거리에를 일체 나가지 않은 것이 유일한 최소의 비결”이라고 하면서 두문분출의 양상이 나타났다. 물론 염상섭의 칩거가 문학적 논쟁의 여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논쟁 이후 이 시기에 「싸우면서도 사랑은」 집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서 염상섭이 1950년 후반 기성 문인으로서 인식해야 했던 문학적 위기의 실체와 그 해결의 방식은 「싸우면서도 사랑은」에서 발견된다. 이는 「싸우면서도 사랑은」이 연속적인 서사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싸우면서도 사랑은」은 1958년 5월 『자유공론』에 발표했던 「택일하던 날」의 서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택일하던 날」은 1950년 9월 서울 수복 이후를, 「싸우면서도 사랑은」은 1951년 1·4후퇴 이후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두 소설은 내용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연작 형태를 띠지만, 각각의 소설에서 초점 하는 방향에는 차이가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택일하는 날」은 가족 서사의 형태를 띠지만 「싸우면서도 사랑은」은 연애 서사의 방식³⁶⁾을 이루고 있다. 「싸우면서도 사랑은」에 구현된 연애

서사의 가능성은 염상섭이 ‘연애소설’의 세 가지 요소로서 제시하였던 “애욕역정”, “황홀한 연애 장면”, “헵피엔드 대단원”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애욕역정”의 양상은 상기와 명선의 애정적 결합이 동석으로 인해 난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명선은 애정의 대상인 박상기 덕분에 가족들과 피난지 부산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다. 그리고 피난 생활 중 상기에 대해 명선은 애정의 감정은 커지게 된다. 명선은 전쟁의 화마를 피해 피난을 내려간 상황이었지만, 피난 생활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마치 “수학여행이나 신혼여행을 온것같다”³⁷⁾고 하였고, “하늘이 무너진대라도 그이만 옆에 있어 준다면 그만이며, 솟을 곳이 있으려니 싶어 근심 걱정이 없고 어린애처럼 그저 즐겁기만”³⁸⁾하다 고백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설에서 명선이 암담한 피난 생활 중에도 긍정적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애정의 대상인 상기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명선의 내적, 외적 상태가 상기가 어느 공간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상기와 떨어져 지냈던 「택일하던 날」의 명선은 “심화로 꿈속 속을 찍이면서 배설배시”³⁹⁾할 정도로 몸이 쇠약했다. 삶에 대해 의욕도 없이 잘 먹지도 못했기에 명선의 어머니는 이러한 딸을 걱정했다. 이처럼 명선은 서울에서 가족들과 안정적 공간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었다. 반면 「싸우면서도 사랑은」에 피난지라는 척박한 공간에서 명선이 웃음을 잃지 않았고, 삶의 활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녀

36) 강현국은 「무화가」는 연애 서사의 중심이며, 「삼대」는 가족사 관련 서사와 현실 관련 서사의 중심에 자리한다고 논의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염상섭 소설에서 연작 형태의 작품들은 가족, 현실 관련 서사 연애 서사라는 형식으로 자주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현국, 앞의 논문.

37) 염상섭, 「싸우면서도 사랑은」, 『염상섭전집』, 민음사, 1987, 243면.

38) 염상섭, 앞의 책, 245면.

39) 위의 책, 162면.

가 상기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선은 상기와 함께 피난 생활을 하면서 점점 “명량한 얼굴에 생기가 또렷또렷”⁴⁰⁾해지는 등 외면적으로도 긍정적 양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명선의 외적, 내적 변화는 상기와 의 공간적 상황을 통해서 해석되며 이는 ‘애욕 역정’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 점에서 연애소설로서의 가능성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 ‘애욕’은 전통주의와 결합하여 위기가 발생하기에 연애소설로서의 한계가 나타난다.

종만에게 달겨 들어서 곧 먹살을 잡을 듯이 막아내는 손을 휘졌고 미친 듯이 날뛰던 동석이 이번에는 식별건 눈을 부릅뜨고 명선에게 대든다. 「이 이가 실성을 했나? 왜 내게 이년 저년해요?」 명선의 말소리는 차근차근하였다. 「뭐, 어쩐다구?」 하더니 건잡을 새도 없이 딱하는 소리가 나면서 고개를 푹 소그리는 명선의 입에서는 식별건 선지피가 철철 흐른다.⁴¹⁾

명선과 택일을 받았던 동석은 자신과 혼인하지 않으려는 명선을 찾아왔고 만나자마자 그녀를 때렸다. 이 일로 인해 명선은 병원에 입원했다. 동석은 명선을 애정하지만, 그녀가 상기를 좋아하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폭력으로 드러냈다. 이와같은 ‘애욕역정’의 양상은 남성 폭력에 의해 전개되기에 염상섭이 추구하고자 했던 젊은 문학을 위한 ‘연애소설’의 양상이 희석된다. 애정이 폭력으로 전환된 여성을 향한 남성의 감정 표출은 이미 염상섭이 과거의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했던 서사적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즉, 남성의 폭력을 통해 전개되었던 애정의 난황은 1950년대에 염상섭이 발표했던 여성 수난 소설(「위협」, 「의치증」, 「자취」, 「어머니」, 「동서」, 「수절내기」)의 연속적 형태였다. 염상섭이 새로운 연애소설의 방식으로 시도한 ‘애욕역정’은 결국 가부장제의 인식에서 벗어나

40) 위의 책, 241면.

41) 위의 책, 247면.

지 못한 기성의 가치관이 반영되고 있다. 게다가 명선이 동석에게 폭력을 당하는 이와 같은 여성의 수난은 애정을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통과 의례의 전통적 단계로 전개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싸우면서도 사랑은」에 제시되는 전통주의 지향은 전후 사회에서 강조했던 여성 성문화에 대한 모럴 강조⁴²⁾와 연관한다. 1950년대 여성을 향한 성도덕은 가부장적인 시선에서 존재해야만 하는 중요한 가치관이었다. 1950년대 전후 사회에 형성된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은 ‘아프레겔’, ‘자유부인’로서 규정⁴³⁾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들의 자유로운 행보는 자유주의적 시선에서 당연한 흐름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지만, 전후 사회에도 여전히 강조된 전통주의 관점에서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이중적 시선이 「싸우면서도 사랑은」에도 반영되어 있고 이를 통해 전통 지향 의식이 내밀히 드러난다. 이는 여성의 애정이 도덕성, 윤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명선은 부모님이 택한 동석과의 결혼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자신이 애정하는 상기와 의 결합을 욕망했다. 하지만 소설에는 명선이 다른 남성을 애정하는 것은 ‘도덕적 미성숙’, ‘성적 타락’으로 비춘다. 동석은 명선이 상기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 요사스런넌! 너를 가만 두고 갈 것 같으냐?”고 위협하면서 여성의 주체적 애정을 타락한 여성의 모습으로 일단락 짓는다. 즉, 1950년대 전후 사회 여성의 성적 방종과 모럴에 대한 경계는 이 소설에서 여성의 육체적인 타락을 넘어 심리적

42) 장은영, 「1950년대 잡지에 나타난 문화계권 담론과 젠더 표상」,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회, 2019, 535면.

43) 아프레겔로 불렸던 전후의 여성상은 “분방하고 일체의 도덕적인 관념에 구애 받지 않는 여성”으로서 실존주의와 연관된 인간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성적 자유와 실존적 자유가 공존하는 여성의 형태는 손소희, 한말숙, 김성한 등의 작품에 등장하였고, “비정상적이며 가정과 국가 외부에 위치”하는 존재였다. 정비석의 작품 『자유부인』에서 등장하는 자유부인도 1950년대 전후의 여성상을 반영하는 인물적 형태이다 “일그러진 정상성이며 가정과 국가 내부에 속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79-84면.

타락이라는 모럴 부재 문제까지도 드러낸다. 여성을 향한 모럴의 강조는 ‘애욕역정’뿐만 아니라 ‘황홀한 연애 장면’이 제시되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환자는 어머니가 나가니까 마음 놓고 보채는 어린애가 하소연하듯이
흑흑 느껴 운다. 말 없는 설은 하소연이었다. 상기는 따라 눈물을 흘리며
붕대위에 자기뺨을 대고 한참 있었다. 나중에는 붕대가 안감긴 이마로
입술이 올랐다. 마주 잡은 손에는 땀이 촉촉이 배일지경이다. 그러는 동
안에 환자는 간신히 마음이 평정해진 듯이 눈물이 고인속에서 생긋 웃어
보인다.⁴⁴⁾

명선은 동석에게 폭행당한 후 병문안을 온 박상기와 대화를 나누었고, 여기에서 ‘황홀한 연애 장면’이 발생한다. 둘은 “이마에 입술을 올리”고, “마주 잡은 손”등 애정적인 행위를 한다. 하지만 이들의 애정 행위에는 여전히 전통의 시선이 존재한다. 이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적 차이로서 나타난다. 이들은 ‘연애’와 ‘결혼’은 구분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은 같지만, 각각을 해석하는 방식은 달랐다. 명선은 “연애를 하다가 지쳐 넘어갈 고비에서 하는 것이 결혼”이라며, “그 까짓 결혼은 해서 뭐 할구? 실컨 사랑이나 해 보다가 지쳐서 숨이 넘어가든 아주 녹아버리든”라며 연소된 애정의 결과물이 결혼이라며 결혼을 부정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상기는 이러한 명선의 의견에 반박하며 결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린다. 상기의 설명에 의하면 연애는 “생명의 연소”, “전력의 소모”지만, 결혼은 “정력의 공급원, 생명의 공급원”이라며 연애보다는 결혼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기의 발언이 설교의 방식으로 전개되어 결혼에 대한 명선의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44) 염상섭, 앞의 책, 250면.

상기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은 자유연애보다는 결혼을 통한 남녀 결합의 중요성이 내밀 되어 있다. 이는 전후 사회가 자유를 중시하는 동시에 여전히 전통주의를 강조하였던 모순적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1950년대는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여성의 평등은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현실이 공존하고 있었기에 여성의 결혼은 남성에게 귀속되는 도의적으로 옳은 행동으로 강조되었다.⁴⁵⁾ 즉, 자유연애와 남녀 애정의 자율성이 제시되는 시기였지만,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불편함을 느끼고 전통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이들도 존재했다. 전후 사회에 형성된 상반된 의식의 공존은 염상섭이 전후 문단에서 기성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와는 다르게 여전히 전통으로 무의식적 흘러가는 기성작가의 모습으로 비친다. 즉, 「싸우면서도 사랑은」에 상기가 명선에게 연애보다 결혼을 더 중요한 가치로서 설교하는 것은 여전히 기성의 문학관을 지키고 있는 염상섭의 지향성과도 관련하는 부분이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 남녀의 자유연애를 지향하지만, 연애의 지속성과 애정 그 자체를 불신하는 모순성으로 인해 전통으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과 탈(脫)전통의 공존은 이 소설에서 가부장과 비(非)가부장의 인식적 차이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명선의 아버지는 피난 오면서 “선조대부터 모아 놓은 시축(詩軸)과 가승(家乘)”을 두고 온 것을 걱정했다. 그는 시축과 가승이 사라진다면 자신의 집안이 “한디한 양반이란걸”⁴⁶⁾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며, 이는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인식했다. 전쟁 현실에서 가부장으로서는 명선의 아버

45) “여성이 결혼을 하면 남성의 가족에 귀속되어야 하는 법과 제도와 문화가 온존하고 있어서, 여성의 사회생활에 민주주의적인 남녀평등의 원리가 관찰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가 결혼을 통해 남편의 가족 구성원이 된 여성까지 보호하지 않는 사회였다. 여성은 결혼을 함으로써 남성의 책임과 보호 하에 귀속된다. 법의 보호대상이기보다 남성 개의 보호 대상으로 위치이동을 하는 것이다.” 이선미, 『젊은 『여원』, 여성상의 비등점』,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269-270면.

46) 염상섭, 앞의 책, 244면.

지는 여전히 전통을 놓지 않으려 했으며, 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비(非)가부장인 명선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의견에 대답했다. 어머니는 “목숨이 왔다가 갔다 하는 판에 그까짓 케케 목은 백지 조가리쯤!”⁴⁷⁾이라며 피난 중에도 여전히 전통과 집안을 중요시하는 아버지를 비판했다. 즉, 전통으로 상징되는 가부장 아버지와 탈(脫)전통을 대변하는 비(非)가부장 어머니가 전통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양극단의 사상적 체계가 공존하는 모순적 현실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전통과 탈(脫)전통의 대립은 애정에 대한 인식적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명선의 아버지는 택일한 동석과 명선이 혼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피난 생활 중 상기와 딸을 “며칠이라도 둘을 한집 속에 두고 지내는 것이 께름직”⁴⁸⁾하다고 여겼다. 아버지는 상기 덕분에 가족 모두 안전하게 피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이미 정해진 혼처와 결혼이 무산됨으로 발생하는 자신의 명예 실추를 더 중요한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상기와 명선이 서로 애정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웬만 하면 저희끼리 그렇게 좋아하니 제 소원대로 해 주고 싶어”⁴⁹⁾, “상기가 고맙고 귀여운 생각까지 든다.”며, 둘이 이어지기를 소망했다. 즉, 가부장인 아버지는 전통적 관념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지만, 비(非)가부장인 어머니는 변화하는 애정의 관념을 탈(脫)전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싸우면서도 사랑은」에 제시되는 가부장과 비(非)가부장의 대립은 탈(脫)전통을 지향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 그 경계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전통으로의 회귀되기 때문이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의견을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고, 상기와 명선이 이어지도록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비(非)가부장은 탈(脫)전통을 지향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내면에만 머물면

47) 염상섭, 앞의 책.

48) 위의 책, 241면.

49) 위의 책.

서 결국 무의식적으로 전통의 관념으로 흘러간다. 마지막으로 「싸우면서도 사랑은」에 제시되는 ‘연애소설’ 지향성은 “헤피엔드 대단원”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로서 해석할 수 있다.

「나시는 대로 우리 곧 예식을 올리게 할거니요.」(중략) 「한꺼번에 덜 펴지게 모닥불처럼 정열을 퍼 붓고 쏟아놓고는 혁 하고 지쳐 자빠져서, 그야말로 시들해지는 것보다는 어린애가 입속에서 사탕을 굴리듯이 두고 두고 찬찬히 녹여가며 애껴가며 사랑의 단 맛을 오래 오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의 명맥을 이어나가라는 것이 결혼인지도 모르겠지.」⁵⁰⁾

「어보게 기막힌 뽕 뉴스 하나 들려 줄까?동석이란 놈이 입대했대! 자원입대(自願入隊)래! 세 살은 오래 살구 볼 일이야.....그야 싸우면서 두 사랑은 해야 하고, 사랑을 하면서도 싸움은 해야 하지만. 아니, 사랑이 있구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싸와야 하지않겠나! 헛하하」⁵¹⁾

상기는 명선에게 “사랑의 명맥을 이어나가라는 것이 결혼”이라며 결혼을 하자고 하였고 명선은 “그 말이 옳다”고 동의했다. 이는 두 남녀의 결합한다는 점에서 “헤피엔드”를 상징한다. 특히 이 소설에서 제시되는 ‘헤피엔드’는 다른 남성과 택일 날까지 받았던 여성이 전통적 규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 사랑을 쟁취했다는 진취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자유로운 연애를 지향하고 사랑의 이루는 것은 연애가 목적된 소설의 결말로 알맞다. 하지만, 이 소설은 둘의 결혼 약속이 최종 결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다른 해석적 여지가 생긴다.

명선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동석은 그 뒤로 사라졌고, 상기와 명선이

50) 염상섭, 앞의 책, 250면.

51) 위의 책, 252면.

결혼 약속을 하였는데, 그 후에 종만이가 와서 동석이 “자원입대(自願入隊)”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소설은 끝난다. 명선과 상기의 결혼 약속이 아닌 동석의 자원입대 내용이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연애소설을 위한 염상섭의 의지와는 별개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전시에 남성의 입대는 민족주의적 세계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동시에 전쟁 현실과 국가적 존재성을 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말로서 제시되는 동석의 입대는 그 행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상기와 명선은 개인의 애정을 이룬 것이지만 동석의 입대는 개인이 아닌 ‘민족’에 대한 애정을 상징한다. 이는 개인을 향한 ‘애정’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정’으로 전환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동석은 넓은 의미의 가부장으로서 민족을 위해 전쟁터에 나갔으며 이를 통해서 ‘민족주의’ 담론은 중요한 가치를 획득한다.⁵²⁾ 이러한 결말은 전시에 염상섭이 주장했던 ‘민족문학론’을 통한 문학적 지향과 관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염상섭은 해방기에 ‘중도파’로서 민족문학을 통한 민족정신을 강조⁵³⁾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해군 중군작가가 되어 다시 민족문학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민족통일, 민족정신의 단결을 강조할 수 있는 민족문학에 대한 새로운 경지를 제시하였다.⁵⁴⁾ 염상섭은 전시문학은 전쟁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사실주의’의 방식으로 구현해야 함을 주장하

52) Balibar는 인종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국과 민족이라는 관념을 ‘가족 수호’에 연결하는 민족에 관한 모든 담론들이 이미 인종주의의 세계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있다.” 하였다. 군대로 간 남성은 조국을 거대 가족의 형태로서 인식하였다. Étienne Balibar, 서관모역, 『민족 형태 : 그 역사와 이데올로기』, 『이론』, 진보평론, 1993.

53) 염상섭은 1948년 「민족문학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라는 글에서 문학의 “자유무해”함을 주장했고 “민족의 광명”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상섭, 「민족문학이란 용어에 관하여」, 『호남문화』, 1948.

54) 염상섭은 “육이오의 악몽같은 一時의 紛擾쯤은 문제도 아니다. 차라리 민족통일, 민족정신의 강인하고 줄기찬 단결력으로 민족문학은 금후 일층 활발히 신경지를 개척하고 발흥할 機運에 際會하였다.” 염상섭, 「한국의 현대문학」, 『문예』, 1952, 10면.

였고 이는 ‘민족문학’을 위한 방법론으로 인식했다. 즉, 군인 되어 전쟁터로 간 동석의 행방은 ‘민족문학’에 대한 염상섭의 문학적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소설 결말 부분에 중만이 “사랑이 있구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싸와야 하지 않겠나”며 동석의 입대가 단지 명신과 결혼 실패로 인한 결과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사랑이 있구 사랑하는 것’에서 ‘사랑하는 것’ 대상이 명신을 뜻할 수 있지만, 전쟁 상황에 놓인 ‘민족’도 상징하기 때문이다. 전시의 사랑 즉, 애정의 대상은 한 명의 여성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닌, ‘민족’으로 전환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소설은 남녀의 애정 결합보다, 전쟁터로 간 남성의 모습을 ‘헵피엔드 대단원’에 위치하게 했다. 이는 염상섭이 「싸우면서도 사랑은」을 발표하기 전 주장했던 새로운 ‘연애소설’의 창작이 여전히 기성의 가치관 안에서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즉, 염상섭은 「싸우면서도 사랑은」을 집필하여 전후의 젊은 문학에 대응하는 ‘연애소설’을 지향했지만, 결국 무의식적으로 기성의 가치관으로 계속 회귀하면서, ‘연애소설’로의 기획은 실패로 끝나버렸다. 그렇기에 이 작품이 당시에 발표되었어도 전후 기성작가인 염상섭의 새로운 창작적 시도로 인식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염상섭은 젊은 문학 논쟁 중 장편소설에도 애정 담론을 다뤘지만,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담아낸 ‘연애소설’을 구현하기 어려웠음을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자신은 젊은 문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증거가 ‘연애소설’ 창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염상섭은 「택일하던 날」의 속편으로 볼 수 있는 「싸우면서도 사랑은」을 집필하면서 ‘젊은 소설’의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염상섭이 연애소설의 요소로 지칭한 세 가지의 요소가 「택일하던 날」보다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싸우면서도 사랑은」은 형식적으로 연애소설을 향한 서사적 방향성이 제시되지만, 소설 전반에 여전히 염상섭이 초기 문학 시절부터 주장해 왔던 ‘민족문학’과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사실주의적’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에

서 연애소설로서의 한계가 발생한다. 즉, ‘연애소설’에 대한 염상섭의 창작 의지와는 별개로 기존에 자신이 추구한 문학적 경향이 무의식적으로 발산됨에 따라 그가 기획했던 연애소설은 방향성을 잃고 만다. 다만 이 소설을 통해서 과거의 문학 지향적 틀을 내재화하고 있었던 노년 작가의 자화상이 발견될 뿐이었다.

5. 결론

본고는 1950년대 후반에 발표했던 염상섭의 소설을 통해서 그의 ‘연애소설’에 대한 의미 지점을 살펴보았다. 염상섭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한국 문단을 이끄는 중추적인 기성 문인이었다. 그는 전후에도 많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당시에 등장했던 신세대 작가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창작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전후 문단의 중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전쟁을 기점으로 남한 문단 상황이 변화하였기 때문이었다.

염상섭은 한국전쟁 시기에 해군중군작가단으로 활동하면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중군 문학 자체가 정훈 문학으로 해석되면서 염상섭의 작품도 다른 중군작가의 작품처럼 정훈 문학이나 목적문학으로 논의되었다. 휴전협정 후 남한 문단은 ‘전후문학’이라는 새로운 기틀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신세대 작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상섭은 ‘민족문학’과 ‘사실주의 문학’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한 작품들은 젊은 비평가, 작가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염상섭은 ‘노쇠문학’, ‘늙은 문학’을 주제로 이어령과 논쟁을 하였고, 여기에서 염상섭은 자신의 문학이 늙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연애소설’ 창작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즉, 염상섭은 젊음의 의미를 물리적 육망의 시점으로 해석하면서 ‘젊은 문학’을 ‘연애소설’로 등식화했다.

염상섭은 자신이 기존에 추구하지 않았던 연애소설의 요건을 ‘애육역

정, ‘황홀한 연애 장면’, ‘해피엔드 대단원’으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요소가 포함된 연애소설을 창작하고자 했다. 염상섭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절내기」가 기성적 문학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난 뒤였기 때문이다. 즉, 염상섭은 「수절내기」는 기성의 측면에 함몰되고 있음을 인식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설이 ‘노쇠 문학’으로 이야기 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연애만을 목적인 소설을 집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택일하던 날」이라는 작품도 「수절내기」와 마찬가지로 ‘애정’이 주가 되는 ‘연애소설’의 형태의 소설이 아니었다. 이 소설은 가부장 중심적으로 구성된 가족의 이야기와 피난민으로서 인간의 삶이 목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염상섭은 비평가들과의 ‘젊은 문학’에 대해 논쟁하고 칩거의 시간을 겪으면서 1959년 1월에 『사상계』에 「싸우면서도 사랑은」을 발표했다. 「싸우면서도 사랑은」은 「택일하던 날」과 내용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택일하던 날」의 속편의 형태를 띠었다. 그는 이 소설을 통해서 「택일하던 날」에 형성하지 않았던 ‘연애소설’을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싸우면서도 사랑은」은 그가 주장했던 ‘연애소설’로의 성격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기성작가로서 염상섭의 문학적 방향성이 제시되는 한계가 나타났다. ‘애욕욕정’의 장면은 여전히 가부장의 지향이라는 모순성으로 드러났고 ‘황홀한 연애 장면’에서도 전통주의적 관점이 내밀 되었으며 ‘해피엔드 대단원’에는 ‘민족문학’의 지향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우면서도 사랑은」은 염상섭이 젊은 문학을 추구할 수 있는 증거로서 제시하고자 했던 ‘연애소설’의 형태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 단계에 멈춰 있었다. 이를 통해서 노년 작가의 문학적 자화상이 발견되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염상섭, 『염상섭전집』, 민음사, 1987.

2. 단행본

권보드레 외,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이재신, 「소설전쟁 체험과 150년대 소설」,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14.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대출판부, 1988.

3. 논문

강한국, 「통속화의 경로」, 『현대소설연구』 9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

공종구, 「1950년대 염상섭 소설의 여성의식과 사회·정치적의식」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김경수, 「전후 염상섭 장편소설의 전개」, 『서강어문』 13, 서강어문학회, 1997.

김영경, 「염상섭 전후(戰後) 단편소설과 말년의 감각」, 『우리말 글』, 우리말글학회, 2021.

김종균, 『염상섭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

유서현, 「한국전쟁기의(재)구성 염상섭의 『홍염』·『사선』론」, 『人文論叢』,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윤국희, 「1950년대 염상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과 정치 염상섭의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人文論叢』,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장은영, 「1950년대 잡지에 나타난 문화재건 담론과 젠더 표상」, 『우리문학연구』, 우리 문학회, 2019.

정종현,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 『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62, 동악어문학회, 2014.

허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4. 평론 및 기사

염상섭, 「만세전 후의 우리 문단」, 『조선일보』, 1954.3.1.

_____, 「문학도 함께 늙는가(상)」, 『동아일보』, 1958.6.12.

- ____, 「문학도 함께 늙는가(하)」, 『동아일보』, 1958.6.12.
____, 「민족문학이란 용어에 관하여」, 『호남문화』, 1948.
염상섭, 「한국의 현대문학」, 『문예』, 1952.
이무영, 「오십대문학의 항변1」, 『동아일보』, 1958.7.5.
____, 「오십대문학의 항변2」, 『동아일보』, 1958.7.6.
이어령, 「문학도 함께 늙는가를 읽고(상)」, 『경향신문』, 1958.6.21.
____, 「문학도 함께 늙는가를 읽고(하)」, 『경향신문』, 1958.6.22.
____, 「두문불출하는 중 독주독악의 염상섭씨」, 『동아일보』, 1958.8.7.

<Abstract>

For ‘Young Literature’ – Focusing on Yeom Sang-Seop’s Late ‘Romantic Novel’

Shin, Eun-Kyung

This thesis examined the meanings of Yeom Sang-Seop’s ‘romantic novel’ through his novel released in the late 1950s. In the 1950s when the color of postwar literature was dotted as new generation writers, Yeom Sang-Seop’s novels were discussed as the limitation of pre-existing literature. Yeom Sang-Seop had literary argument about ‘young literature’ with young critics by facing the criticism in which his works were the pre-existing ‘old literature’. After that, he published [Love While Arguing] at 『Sasanggye』 in January 1959. Through this work, the ‘young literature’ that Yeom Sang-seop wanted to pursue in the late 1950s and the method of ‘love novel’ as a specific practice of this are revealed. 「Love While Arguing」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is a work that reflects the reality of Yeom Sang-seop, who was entering a new literary phase in the late 1950s. However, his romantic novel he planned lost the direction as the pre-existing literary tendency he previously pursued was unconsciously released, separately from his will to create ‘romantic novel’. This novel just shows an old writer’s portrait internalizing the literarily-oriented frame of the past.

Key words: Yeom Sang-seop, romance novel, young literature, post-war literature, 1950s

투 고 일: 2024년 11월 18일

심 사 일: 2024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21일

수정마감일: 2024년 12월 27일